



안녕하세요. 김금숙 수녀입니다. 잠자리 날개 같은 햇빛이 들풀 위에 내려앉은 가을입니다. 저는 소박한 서민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해 오신 부모님 아래서 2남 2녀의 장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 부터 수녀가 되기를 희망해온 저를 하느님께서 사랑의 수녀로 불러 주셔서 입회한지 벌써 28년 째 되는군요. 3곳의 본당과 은혜학교 행정, 본원회계와 공부, 양성사도직을 거쳐 지금은 은티에서 농사를 하며 생태적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은티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산 중턱에 자리한 인가와는 좀 떨어진 곳이지만 자연이 주는 아늑함과

신선함을 가득 담고 있는 곳이지요. 텃밭에는 고추, 콩, 쌈채, 감자, 들깨 등 온갖 채소류를 심고 큰 밭에는 아로니아와 어린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부도하고 마을 어른들께 배우면서 하다보니 수확의 기쁨도 알게 되는군요.



‘어르신, 들깨 씨는 언제 뿌리나요?’ ‘빠꾸기가 올면 그 때 뿌려, 아직 멀었어’ ‘고구마는 언제 캐야 하나요?’ ‘서리 내리기 전에’ 빠꾸기가 언제 우는지, 서리는 언제 내리는 건지, 시골에 사는 것은 자연에 귀와 눈을 여는 것부터 배우게 해 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천에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도 만나게 되고, 하느님 현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은 농사꾼이 아니어서 실패도 많고 요령이 없어 몸도 고달프지만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께 신뢰를 합니다.

농한기나 비가 오는 날, 여름 한철 뜨거운 낮 시간은 일을 할 수 없기에 카드를 그립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저런 시도들을 해 보며 저 자신도 풀어내고 또 우리 수녀님들과 서원에서 사 주시면 그럭저럭 난방비를 할 수 있지요. 카드를 그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카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기를...”

또 은티에는 수녀원과 함께 쉼의 집이 나란히 있어 수녀님들과 지인들이 오셔서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해보지 못한 밭일을 거들며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채소를 거두어 식사를 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만나면 우리가 은티에서 땀을 흘리며 생태적으로 사는 길을 찾기도 하지만 쉼터 오시는 분들과 더불어 생기를 찾는 곳이란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단조로움과 한편 복잡함과 고단함으로 지친 모든 이들이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도록 기도하지요. 이곳에 현존하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은티 마을을 위해 삼종기도를 바쳐드리고 환대와 정직한 땀과 일상의 기도 안에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 언제나 편안하게 은티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Hello Sisters! My name is Sr. Kim, Keum Suk. It is autumn when the sunlight like dragonfly wings sits on the grass. I grew up as an eldest daughter of two sons and two daughters under my parents who have lived faithfully as Catholics. It is already 28 years since I was invited to be a religious. Since I was a child I wanted to become a sister. I worked as a parish sister in three parishes, an administrative director of Eun Hae School, treasurer of the Provincial House, a student, and formation director. Now I am working and living at the ecology local community, which is near Eun-Ti Village. The ecology house is located at a distance from the

village, partway up a mountain. Surrounded by the high mountain and a deep valley it is full of the coziness and freshness of nature. In the garden we plant all kinds of vegetables such as peppers, beans, lettuce, crown daisy, potatoes, and perilla. Aronia and young walnut trees grow in big fields. It is not easy to farm, but as you study and learn from the townspeople, you will find the joy of harvesting.



"When should the perilla seeds be sown?" "When cuckoo cries, you should sow the seeds." "When should the sweet potato be planted?" "Before the frost comes." To live in the farm is to learn how to open our eyes and ears to nature. By doing so I can feel the hands and presence of our Lord. I am not a professional farmer yet. So, I have many failures. However, I put my trust in God who leads me through all these works.

When it rains, or the weather is too hot to work outside farming, I draw pictures so that I can sell the cards to earn money to pay heating cost. When I paint the cards, I always wish that many people will express their love to others by using my cards."

There is also another house for rest near the convent. Our sisters and some acquaintances visit there and stay to refresh themselves. They have the opportunity for farming and gardening that they cannot afford to do in a city. I pray for them that they may receive and feel the love and consolation of God. Living here, I don't spread the Gospel by teaching and preaching to others, however, I pray the Angelus for this village and villagers. And I am grateful to God that I am offering my work and sweat to God in my daily life.

If you wish to visit here, please come! You will be always welcomed!!

